순천시, 아랫장 전남 최초 '지역선도시장' 공모 선정

2년간 20억원 지원…전통시장 혁신의 바람 기대

순천시는 최근 야시장 운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순천 아랫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에서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년간 20억원을 지원 받아 전통시장 육성에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 된다.

지원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롤모델 구축을 위한 특화상품 사업화 및 상인조직화,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 지역 거점시장 및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등이다

순천시는 '핫 플레이스 순천 아랫장' 조성을 목표로 상인과 지역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순천 아랫장만의 콘텐츠와 지역 특산물, 특화 음식, 관광자원과 연계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치는 시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경제진흥과 이재성 과장은 "순천을 찾은 1,000만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콘텐츠 코리아랩과 연계한 야시장 프리마켓 운영 활성화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에 낭트생나제르 미술대학 분교 개교

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번영 기대

순천시는 11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프랑스정원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낭트 생나제르 미술대학의 한국분교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교식에는 낭트 미대 총장(장 갈댕)을 비롯하여 부총장(로젠 르 메레르), 낭트 부시장(엘리자베트 르프랑), 전 프랑스 총리(장 마크 애호), 주한프랑스대사(파비앙 페논), 낭트 미대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교행사로 아고라순천 문화행사, 현판 제막식, 캠퍼스 둘러보기 등이 진행되었으며, 낭트 대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직접 제작해 온 작품 전시회도 병행하였다.

낭트 미대 한국분교는 지난해 2월 후보지 현지 실사 및 최종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4월에 분교 순천 설립을 확정하였다.

2018년 4월부터 국가정원 내 프랑스 정원 건물에서 최소 6년 동안 운영되며, 매 학기 낭트 미술대학 본교의 교수진 및 석사과정 학생 10여명이 6개월 과정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느끼고 창작활동을 통해 표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학 기간에는 인터내셔날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권의 본교 입학대상 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2006년 낭트시에 순천동산을 조성하고, 낭트시가 2009년 순천시에 낭트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낭트시 식물대축제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생태문화도시 순천에 프랑스 대표 문화도시 낭트시의 생나제르 미술대학 한국분교를 개교하게 된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낭트시의 생나제르 미술대학 한국분교가 본교생과 우리시 예술인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어, 순천 천혜의 생태자연에 프랑스의 품격 높은 문화가 더해진 아시아생태문화 중심도시 순천의 마인드 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개교행사 일환으로 장 마크 애호 전 프랑스 총리를 초청하여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안전,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 : 불확실한 세계속의 희망' 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구인 · 구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청년들의 잦은 이직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도와 컨소시엄으로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모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대학교수 등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사업비 4천9백8십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국가산단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에 응모하게 됐다.

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고용노동부여수지청,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에서 참여한 가운데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컨설팅 수행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중 4~5개 업체를 선정해 고용형태, 산업구조 전반과 특정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수도권,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중 사업설명회와 기업별 간담회, 5월과 9월에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화순군, 중국 관광객 유치 '청신호'

공모사업 선정 중국 관광객 2500명 유치 확정

화순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중국 관광객 2,500명 유치가 확정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독창성, 지역문화 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 11개 항목에 대한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화순군이 응모한 '시간여행 in 화순'을 선정,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간여행 in 화순'은 화순의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문학적, 연극적 요소와 미디어 아트 영상을 결합해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문화콘텐츠공연으로 올 하반기부터 매월 1회씩 능주면 역사관 일원에서 공연하게 된다.

화순군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군은 '시간여행 in 화순' 공연에 대형 여행사와 연계해 매회 공연시마다 중국인 관광객 500여명을 유치해 중국 관련 문화자원을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순 관내에는 화순적벽을 비롯해 주자묘, 정율성 유적 등 중국 관련 자원이 풍부하다.

군은 39억원을 들여 적벽탐방길 조성 등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과 12억원을 들여 정율성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농사체험학습장 개장

135세대 참여, 농업 · 농촌 이해도 향상과 여가문화 정착 기대

광양시는 12일 오후 2시 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가족단위 주말농장인 농사체험학습장의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사체험학습장'은 가족 단위로 텃밭농사를 경험하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농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135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농사체험학습장 운영시 유의사항과 텃밭작물 가꾸기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농사체험학습장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일반인과 실버로 구분해 13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농사체험장은 12월까지 운영되며, 시는 시험포장 내 부지 2,320㎡를 조성하고, 각 세대별로 16㎡의 텃밭을 분양했다.

농사체험에 필요한 계절별 채소 모종, 씨앗 및 소농기구는 참여가족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허명구 기술보급과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농사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가족단위 여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행복한 도시농업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재난지원체계 구축

6개 기관 협약체결

나주시는 지난 9일과 10일 관내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재난 지원 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을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구조 및 복구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지원,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 손실을 비롯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대대장 고동환), △전국건설기계 나주시지회(회장 조윤칠), △한국열관리협회 나주지회(회장 윤태환), △㈜하나환경(대표 홍영민), △금성환경개발㈜(대표 한승훈),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나삼균) 등 재난 협업 관련 6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재난 발생 시, 굴삭기 130대, 덤프 21대, 도저 3대 등 중장비 154대, 구조 인력 369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